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① 백운대(白雲臺)



백운의 봉우리를 본 이성계는...

우리나라 오악(五嶽) 중 하나인 북한산은 서울을 지키는 진산으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1년에 1000만의 사람들이 찾고 있는 북한산엔 총 42개의 봉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 불교에서 비롯된 이름이 반이다. 오랜 세월 불교와 인연을 맺어온 북한산은 수도 서울의 진산으로 도성을 수호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불교적 이름을 지닌 봉우리를 '스토리텔링'이라는 방식으로 소개해, 북한산이 지니고 있는 불교적 의미를 조명해 본다.

백운대는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북한산 최고봉으로 높이는 836m에 이른다. 맑은 날에는 인천 앞바다와, 강화도의 마니산, 개성의 송악산까지 볼 수 있으며 백운대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창업을 얹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성계는 공손하게 예를 갖춘 후 무학대사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청했다. 하지만 무학대사는 조용히 이성계의 얼굴을 바라볼 뿐 좀 채로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긴장 속에서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무학대사가 꿈을 해설 해 주었다.

“등에 서가래를 짊어졌으니 임금 왕(王)자 형상이 분명하고, 꽃이 떨어졌으니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힐 것이며, 거울이 깨졌다는 것은 세상이 시끄럽게 된다는 뜻이니 조만간 새 임금이 탄생될 징조로 참으로 큰 꿈이외다.”

무학대사로부터 꿈 해몽을 들은 이성계의 가슴은 감격과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동안 변방을 지키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 온 이성계로서는 도란도란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쇠락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강력한 새 왕조를 세워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막상 무학대사로부터 새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니 두려움이 앞섰다.

“대사님, 제게 좀 더 확실한 언질을 주십시오. 과연 제가 그 대업을 이루어 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하늘만 알 뿐 소승은 모르는 일이외다.”

“그럼 하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성계로부터 질문을 받은 무학대사는 잠시 눈을 감고 선정에 들어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장차 도읍을 정하게 될 땅엔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을 것이외다. 그중에서 백운(白雲)을 찾도록 하십시오. 하늘이 장군을 허락한다면 백운이 그 위용을 드러내게 될 것이외다.”

이성계는 스님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물러났다. 그러면서 백운(白雲)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새 왕조를 세우려는 야망을 조심스럽게 키워갔다.

왜구와 흉악적의 침략을 막아내며 용맹함을 떨쳤던 이성계에 대한 백성들의 칭송은 날로 더해갔다.

1388년 우왕이 즉위한지 14년째 되는 해였다. 원을 격파한 명이 예전 원의 땅이었던 철령 이북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고려조정은 명의 요구를 거절하고 요동을 정벌하려 했으나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다. 승산 없는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왕명을 따라야 할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기로에 선 이성계의 머릿속에 '백운(白雲)'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왕명을 받고 오랜만에 개경으로 온 이성계는 개경 주변을 돌다가 남경이라고 불리는 한강 부근까지 내려왔다. 그는 한강 주변의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산세를 살펴다가 지나가는 한 노인을 붙들고, 세 개의 산봉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산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인은 대답 없이 지팡이를 들어 등 뒤의 산을 가리켰다. 이성계는 노인이 가리키는 산을 오르기로 시작했다. 사람의 발길이 나 있지 않은 산은 한 발자국도 옮기기가 힘들었다. 전정터를 누비고 살아 온 그였지만 칠령굴과 가시덤불,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산을 오르는 일은 참으로 험난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산길을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결심을 굳힌 강력한 자기암시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얼마간 그렇게 산길을 오르자 뽕처럼 높이 솟은 세 개의 봉우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봉우리들을 보는 순간 이성계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자기가 찾고 있는 봉우리들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흠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서있는 소나무는 마치 수없이 많은 전정터에서 위태롭게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성계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가야 할 곳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봉우리가 셋임은 분명한데 그 봉우리들은 검은 구름에 감겨 있어서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 백운(白雲), 자신이 찾고 있는 봉우리는 어느 것인가? 검은 구름에 가려있는 세 개의 봉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이성계의 가슴은 흔들렸다. 백운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다. 불안감에 젖어 있던 이성계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세 개의 봉우리가 잘 보이는 자리에 정좌하고 앉았다.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뒤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며 기도를 드렸다. “꼭 부강한 나라를 세워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하겠습니니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성계의 눈앞에 기적처럼 한 봉우리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봉우리 주위로 흰 구름이 겹겹이 둘러쳐지고 있었다. 흰 구름에 쌓여 있는 봉우리는 너무도 신령스러워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경건해졌다. 이성계는 하늘의 화답에 감격해하며 오랫동안 흰 구름에 쌓인 산봉우리를 우러러 보았다. 이성계에게 왕의 자리를 허락해준 봉우리를 사람들은 '백운대'로 부르게 되었다.

〈애기꾼〉 김미정

1천 천수천안 관음보살 상주하는 연화세계



신중일 기자 일본 불교 고찰을 가다

① 교토 산주산겐도



건물의 길이가 118m에 달하는 '산주산겐도'의 본당. 이 안에는 1001체의 관음보살상과 이를 수호하는 역사상들이 함께 봉안돼 있다. 실제 역사상들은 모두 일본의 국보로 등록돼 있다.

1001. 바로 일본 교토의 유명 고찰 '산주산겐도(三十三間堂)'에 모셔진 목조 관세음보살상의 개수다. 교토국립박물관 건너편에는 '산주산겐도'는 말 그대로 본당 건물의 정면 기둥이 33개로 이뤄진 것에서 유래했다.

본당의 길이란 118m에 달하는 이 사찰의 본래 이름은 '렌게오인(蓮華王院)'이지만 33개의 기둥으로 이뤄진 본당 건물이 유명해 '산주산겐도'로 부르고 있다. 1164년에 고시라가와(後白河) 법황이 1001체의 관음상을 안치하기 위해 세운 것이었으나 현재의 건물은 13세기 중엽에 재건된 것이다.

무엇보다 '산주산겐도'의 가장 압권은 본당 안의 1001체의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다. 법당 중앙에는 천수관음좌상의 중존이 안치돼 있고, 그 좌우로 500체씩의 총 1000체의 천수관음입상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서 있다.

맨 앞에는 일본 특유의 풍신(風神)과 뇌신(雷神)상 등 역사(力士)상이 있다. 이 천수관음상들도 법당과 함께 13세기 중엽에 대부분 다시 조성된 것들로 당시 교토와 나라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작품이다.

모두 금박을 입힌 목상인 천수관음상은 40개의 팔이 있는데 각각의 팔이 25개의 세상을 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관세음보살은 인간 세상에 응신할 때 33가지의 모습으로 화현한다고 한다. 1001체의 관세음보살을 모신 '산주산겐도' 본당의 기둥이 33개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중앙에 안치된 본존 천수관음좌상은 단케이 스님의 작품으로 그 높이가 3m에 달한다. 나머지 불상들도 단케이 스님을 중심으로 한 당대 최고 불모(佛母)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한다.



본당 안의 1001체의 천수관음상 중 일부. 빼곡이 들어선 불상들의 호상은 모두 다르다.

33개 기둥 세워진 사찰 본당

1001체의 천수관음보살 조성

한량없는 자비심 일깨우는 듯

실제 단케이 스님의 필생의 대사업은 바로 '산주산겐도'의 불타버린 천수관음상들을 다시 조성하는 것이었다. 스님은 수리 총책임자가 돼 교토와 나라에서 활동하던 공방의 불사들을 이끌고 천 구의 천수관음상의 조성에 착수했다. 새로 조성됐던 800체 이상의 관음상에 대한 많은 조성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의 조각 상황을 잘 전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라 공방의 작품들은 대체로 옷 주름 처리에 움직임과 변화를 보이고 얼굴 표현도 팽팽해 힘찬 느낌이 나고 교토 공방의 작품들은 부드러운 헤이안 후기 작품의 명맥을 잇고 있다. 건물 끝에서 보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천수관음

의 모습이 무척이나 경이롭다. 거기다 천수관음상의 얼굴은 모두 다르게 생겼다.

“당시의 불모(佛母)들은 불상의 얼굴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과 감을 속에서 조성하였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저 많은 불상 속에는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얼굴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동감과 장엄함은 '산주산겐도' 본당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불상들 예게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산주산겐도'의 천수관음은 그 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에 대해 “한량없는 백천만의 중생이 갖가지 괴로움을 당할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말을 관하고 모두 해탈케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막부정치가 시작되고 일본의 정국이 혼란으로 치달고 있었을 가마쿠라 시대. 당시 불모들은 무슨 염원을 담아 1000구의 관음보살상을 조성했을까?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 치정자들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을 민초들에게 희망을 주려는 시도였을까?

‘불보살님은 때때로 은근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명훈가피(冥薰加被)의 명제처럼 눈 앞에서 불보살을 친견 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보살과 주고 있다는 염원이 1천 천수관음에 담겨 있는 듯하다.

그 염원은 800여 년이 흐른 지금에도 '산주산겐도'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도저히 고 답답하게. motp79@hyunbul.com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자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교를 이른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법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리아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